

## 26. 韓國住宅協會 '96年度 下半期 住宅相談實績 決算

資料提供：韓國住宅協會

□본 협회가 회원사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주택분양을 촉진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에게 분양 및 미분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지난해 7월 설치한 「주택상담실」을 이용하는 상담객이 매월 급증, 상담실 설치 6개월이 지난 지금 「주택상담실」은 어엿한 내집 마련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택상담실이 문을 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상담건수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상담건수

: 지난 6개월간의 총 상담건수는 전화상담이 7,075건으로 이는 월평균 1,179건·1일 평균 53건의 문의전화를 상담한 것이다. 또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직접 방문한 상담객만도 총 516명으로 매월 평균 5명 이상이 방문했다.

### • 상담내용

: 상담내용으로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전체 상담건수의 40.7%인 2,88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는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30.5%인 2,155건이었다. 그밖에도 청약관련 제도에 관한 문의가 959건, 세제관련 303건, 기타 778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의내용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보면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상당수가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의 대부분은 경기도일대 소형 미분양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찾았다. 반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미분양을 찾는 실수요자들은 중·대형 이상의 아파트를 찾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지난 95. 11 시행된 정부의 미분양활성화대책으로 융자·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문의로 많았으나 지난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수도권지

역의 경우 금융·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아파트가 거의 소진된 상태여서 실수요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문의는 특히 지난 연말의 경우 새해에는 표준건축비가 인상돼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판단한 청약대기자들의 “96 서울시 6차 동시분양”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

□이처럼 주택상담실은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과 회원사의 미분양주택 해소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96년도(7월~12월) 주택상담실적 및 세부내용〉

월 별	상담건수	상 담 내 용					직접방문
		분 양	미분양	청 약	세 제	기 타	
7월	1,136	297	486	126	29	198	36
8월	1,115	384	511	113	26	81	83
9월	887	308	390	100	23	66	61
10월	1,243	315	587	169	50	122	91
11월	1,299	518	381	188	78	134	93
12월	1,395	333	525	263	97	177	152
계	7,075	2,155	2,880	959	303	778	516
월평균	1,179	359	480	160	50	130	86
1일평균	53	15	20	9	3	6	5